

	보도자료	2026. 5. 29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강병수	☎ 760-7901
		특화작목육성팀장	오승진	☎ 760-792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 서부지역 양채류 병해충 대응 매뉴얼 나온다

- 이상기상에 따른 양채류 병해충 발생 양상 변화...적기 대응 지원 -
- 지난해 발생한 주요 병해충 발생 시기·예찰 방법·초기 대응 요령 등 수록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강병수)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채류 병해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‘양채류 병해충 경감 재배 매뉴얼’을 제작·배포한다.
- 서부지역은 도내 양배추·브로콜리·콜라비 등 주요 양채류 재배면적의 74.2%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월동채소 주산지다. 최근 기후변화로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하면서 농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.
- 특히 지난해 9월 평균기온 상승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뿌리혹병과 시들음병 외에도 검은무늬병, 검은썩음병, 순나방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에 따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양채류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병해충별 주요 발생 시기와 예찰 방법, 생육단계별 관리 요령 등을 담은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.
- 매뉴얼에는 지난해 발생했던 주요 병해충의 발생 동향을 비롯해 병해충별 주요 증상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조건, 생육단계별 중점 관리 시기와 예찰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.

- 또한 농가에서 현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요 관찰 지점과 초기 대응 요령도 함께 수록하고, 양채류 재배 시기에 앞서 농업인들에게 사전 배포할 계획이다.
- 오승진 특화작목육성팀장은 “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농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예찰하고,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